

“데드풀2 흥행하면 소주 병째로 원샷”

“한국팬 좋아서 이사와야겠어요” 영화 속 캐릭터처럼 ‘입담’ 과시 타노스 관련 ‘떡밥’ 호기심 증폭

“데드풀2가 한국에서 흥행하면 소주를 병째 원샷하겠다!”

탁월한 재치와 유머 감각을 자랑하는 할리우드 스타 라이언 레이놀즈가 예상치 못한 ‘흥행 공약’을 즉석에서 내놨다. 그동안 “어벤져스에 끼워달라”는 공개 구애 발언을 내놓던 그가 처음 내한해 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삼삼이 풀어냈다. “한국 팬이 좋아서 이사를 와야겠다”며 “살만한 아파트를 봐주겠다”고도 했다.

16일 개봉하는 ‘데드풀2’는 마블 출신 영웅 가운데 중점을 수 없는 매력의 악동 데드풀이 주인공이다. ‘어벤져스’ 등 마블스튜디오가 제작하는 히어로 시리즈에 속하지 않은 채 독자 노선을 걷는 영화다.

‘데드풀2’가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극장가를 점령한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기세를 이을 마블 히어로라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두 영화의 차이는 확실하다. 기존 영웅들이 ‘공약’에 치

중한다면 ‘데드풀’은 ‘사익’이 우선이다. 욕도 하고 막말도 쏟아낸다. 히어로 무비답지 않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도 특징. 라이언 레이놀즈는 “어벤져스가 먼 미래를 생각해 지구를 구한다면 ‘데드풀’은 작은 미래에 주목한다”고 그 차이를 짚었다.

2016년 개봉한 1편은 암 치료 도중 막강한 힘을 갖게 된 데드풀의 탄생을 그려 331만 관객을 동원했다. 2편은 데드풀이 미래에서 온 용병 ‘케이블’과 만난 겪는 이야기다. 특히 케이블 역은 현재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흥행을 이끄는 악당 캐릭터 타노스를 연기한 조시 블로닌이 맡았다. 때문에 ‘데드풀2’에는 타노스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등장한다는 게 라이언 레이놀즈의 설명이다. 마블 팬의 호기심을 달궂인 ‘떡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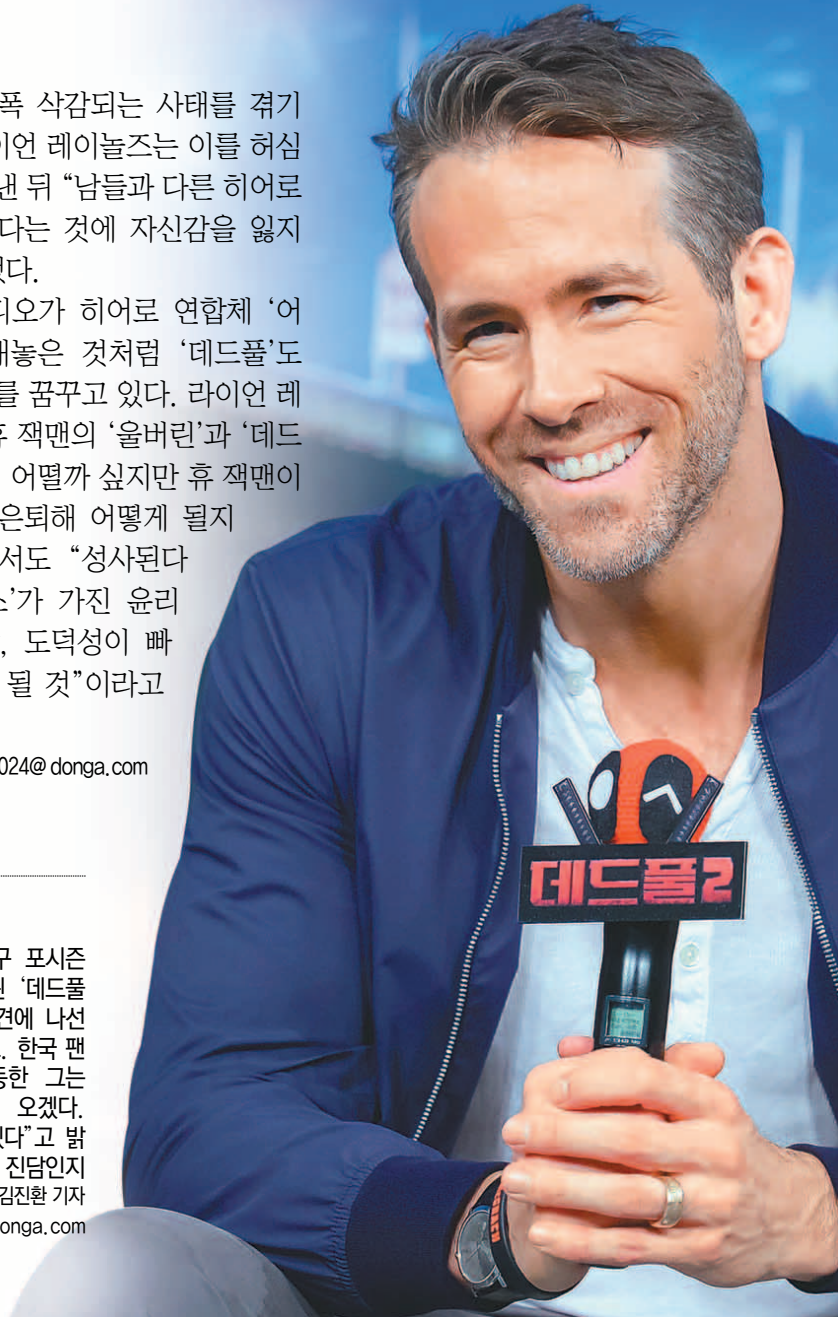
‘데드풀’은 기존 마블 시리즈와 비교해 제작비가 적고 그만큼 규모도 작다. 우여곡절 속에 1편을 성공으로 이끌고 2편 제작까지 완성시킨 주역은 다른 아닌 라이언 레이놀즈다. 2004년 ‘데드풀’ 기획을 시작한 그는 2008년 각본가의 손잡고 작업에 본격 나섰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1편 제작 때는 촬영이 6주나 남은 상태에서

제작비가 대폭 삭감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라이언 레이놀즈는 이를 허심탄회하게 꺼낸 뒤 “남들과 다른 히어로 무비를 보인다는 것에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고 했다.

마블스튜디오가 히어로 연합체 ‘어벤져스’를 내놓은 것처럼 ‘데드풀’도 비슷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 라이언 레이놀즈는 “휴 잭맨의 ‘울버린’과 ‘데드풀’의 연합이 어떨까 싶지만 휴 잭맨이 울버린에서 은퇴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성사된다면 ‘어벤져스’가 가진 윤리적인 강인함, 도덕성이 빠져있는 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2일 서울 종로구 모시문소호텔에서 열린 ‘데드풀2’ 내한 기자회견에 나선 라이언 레이놀즈. 한국 팬의 환대에 감동한 그는 “서울로 이사를 오겠다. 아파트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두고 볼 일이다. 김원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해시태그 컷



장신영, 8등신 인증

연기자 장신영이 완벽한 비율의 몸매를 과시한다. 산책 중에 찍은 사진을 공개한 그는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지만,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흰 셔츠와 부츠컷 청바지로 댄시를 뽐낸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환한 미소가 울창한 나무와 어우러져 삼경하다. 팬들은 “8등신 미녀다” “강경준이 반할 만하다” 등의 부러운 반응을 보인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동아 #장신영 #8등신 #완벽한비율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연예 잡학사전>

선거송 선택 기준은 ‘중독성’ 정당별 사용료 2000만원 선

선거철 로고송은 최고의 유세 도구로 꼽힌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거 로고송에 담아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인기 동요 ‘상어가족’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은 선거 로고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엿볼 수 있는 사례다.

선거 로고송의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대중 후보가 DJ.DOC의 ‘DOC와 춤을’이라는 곡을 ‘DJ와 춤을’로 바꿔 불러 화제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근 발표한 선거 로고송은 1세대 아이돌 H.O.T.의 ‘캔디’, 잭스키스 ‘컴백’, 트와이스의 ‘치얼업’, 오렌지카라멜 ‘까탈레나’, 아이유의 ‘좋은날’, 모모랜드의 ‘뽀뽀’ 등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선정한 선거 로고송을 살펴보면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 ‘중독성’이다. 따라 부르기가 쉽고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가사면 된다. 2016년 히트곡이자 강한 중독성인 뽀뽀 ‘픽미 픽미’가 ‘선거 송’으로 가장 인기를 끌었다.

귀에 쏙쏙 끼는 멜로디의 트로트는 ‘선거 송’의 백미다. 20대부터 4~50대까지 누구나 알고 있는 곡이라 언제나 인기가 높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김연자의 ‘아모르파티’, 박현빈의 ‘사방사방’, 홍진영의 ‘엄지 척’ 등이 각 정당의 ‘선거송’으로 선정됐다.

그렇다면 각 정당이 지불하는 노래의 사용료는 얼마나 될까. 답은 곡마다 다르다. 보통 3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를 오간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측은 12곡에 4310만원을 지불했고, 홍준표 후보 측은 8곡의 노래에 1억7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연 기자

편집 | 김창호·김대건 기자

‘구원파 연루설’ 부인한 박진영 “법적 책임 묻겠다”

인터넷 매체 구원파 연루설 기사에 박진영 “성경공부 모임일 뿐”발끈 모임 참가한 배용준도 연루설 부인



박진영

트와이스, 갯세븐 등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2일 불거진 일명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연루설을 강력 부인했다. 아울러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박진영은 2일 인스타그램에 “개인적으로나 JYP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 속칭 ‘구원파’ 모임의 사업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며 연루설을 부인했다.

박진영은 “4년 전 친구와 둘이 일주일 두 번 모여 성경공부를 하다가 친구의 친구, 또 그 친구의 친구가 더해져 이제 한 3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속칭 ‘구원파’ 모임인 것이냐”고

박진영에 따르면, 그는 최근 자신의 비용으로 장소를 빌려 성경 공부를 주도했다. 그 자리에는 100명이 모였고, 구원파에 속한 이들도 박진영의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며 함께 했다.

향변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겨짜서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쓴 장문의 간증문도 게재했다.

이날 한 인터넷 매체는 박진영이 이끈 종교 집회를 취재한 내용을 내보냈다. 박진영이 세월호 소유주 청해진해운의 관계사를 운영한 변기춘 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졌다. 해당 집회에 박진영과 친분이 두터운 한류스타 배용준도 함께 했다.

박진영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자신의 부인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영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조카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원파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유 전 회장은 개신교의

간 가는 ‘공작’...세계가 뜨거운 이유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 그려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국관심 증폭



공작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 영화제인 칸 국제영화제에서도 이와 관련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영화제 초청작인 한국영화 ‘공작’이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분단 상황에 얽힌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이다.

‘공작’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의 전성시대’, ‘군도:민란의 시대’ 등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의 신작.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 등이 주연해 1990년대 중반 북핵의 실체 파악에 나선 안기부 스파이와 남북 사이에 벌어지는 첩보전을 그린 작품이다.

‘공작’은 9일(한국시간) 개막하는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다. 미드나잇 스크리닝은 액션, 스릴러, 공포,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 영화를 소개하는 섹션이다.

영화는 1994년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봉합된 이후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에서 ‘공작’의 내용이 칸의 많은 관객 역시

관심의 시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등으로 지난해 최고조에 달했던 한반도 긴장 상황이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급격히 완화되고,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만큼 큰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북핵 관련 이야기를 담아낸 한국영화가 세계 최대 규모를 인정받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되면서 해외의 다양한 시선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작’의 윤종빈 감독과 주연배우 황정민, 이성민 등은 칸 국제영화제 개막을 전후해 현지로 날아갈 예정이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게임 예능 ‘두니아’...가상의 세계로 초대

넥슨 ‘듀랑고’ 모티브...오늘 첫방송 캐릭터 설정 따라 임무 콘셉트 눈길



두니아

MBC 새 예능프로그램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가 가상 세계와 예능프로그램의 경계를 오가는 콘셉트로 주목받고 있다.

3일 방송을 시작하는 ‘두니아’는 국내 게임 업체인 넥슨의 모바일 MMORPG ‘야생의 땅:듀랑고’를 TV로 옮겨놓은 프로그램이다. 동방신기의 유노윤호, 정혜성, 샘오취리 등 10명의 스타가 가상의 땅인 두니아에 불시착한 뒤 각종 미션을 수행하며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담는다. 지난해 7월 종영한 MBC 드라마 ‘미생나인’의 예능 버전으로도 불리고 있다.

‘두니아’는 제작의 출발점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게임처럼 미리 설정이 되어있는 캐릭터를 10명의 출연자가 맡는다. 이들이 각 캐릭터 설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실제 성격을 투영해 각종 모험을 펼쳐나간다. 마치 게임 속 캐릭터가 TV로 이동한 느낌을 전달해 시청자에게는 게임 유저가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게 가장 큰 재미다. 실제로 제작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출연자들이 입고

등장할 의상을 선택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두니아’는 흥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관찰예능프로그램과 노선을 달리해 주목받고 있다. 관찰 포맷의 프로그램은 모든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고, 출연자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지만 ‘두니아’는 캐릭터 설정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된다. 게임처럼 캐릭터 설정이 ‘열정과 성실함이 환골을 타고 온몸에 돌아다니는 리더’라면 이 캐릭터를 맡은 출연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방식이다.

‘두니아’ 측은 “다양한 극적 장치와 지금껏 보지 못한 연출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오가는 설정이 재미요소다. 내용은 리얼하지만 이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은 ‘인리알’이어서 게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